제28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1. 1. 28(금), 16:00 ~ 16:51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7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김관균, 박윤규, 박정웅, 이재호, 조중열 평의원(이상 7명)
- 불참 평의원 : 김용호, 박상호, 박철균, 오동석, 임원형, 이해진 평의원(이상 6명)

4. 회의안건

가. 의안(자문 및 논의)

-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성원보고 해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총 13분 중에서 오늘 현재 참석하신 분은 7분입니다. 오동석 평의원은 20분 뒤에 도착예정이십니다. 이해진 평의원께서는 조금 전에 전화 와서 오늘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임원형 평의원은 참석한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분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차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학이기도 하고 음력으로 섣달 그믐인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예산자문, 추경자문과 몇 가지 현안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안건이 추경자문입니다. 먼저 학교 측에서 나오셨나요?

간사 김근태 : 네

의장 박영무 : 시작하기 전에 총장실, 홍보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했죠? 총무처장은 연락이 되었나요?

간사 김근태 : 지난번에 총무처(경리팀)에서 온 공문 의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무 : 못 받았는데요? 말로 설명해주세요.

간사 김근태 : 공문 온 것을 메일로 드렸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청사항에 대해

< 간서명 란 >

의 장

서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기획처(예산팀) 확인결과 요청하신 업무추진비 예산은 2010학년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경 예산에 변동사항이 없는 항목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의장 박영무 : 자료 제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예산팀장 조경숙 : 업무추진비 추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무 :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했습니까?

예산팀장 조경숙 : 예산변동이 있느냐고 물어 와서 저희는 예산변동이 없다고 총무처(경리팀)에 알려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무 : 만약 있으면 어떡하지요?

예산팀장 조경숙 : 추경에 변동은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만약에 쓴 돈이 명확하게 예산집행내역에 있는 내역과 달리 다른 돈이 집행되었으면 어떡하지요?

예산팀장 조경숙 : 그건 결산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장이 답변해주세요. 있으면 어떡하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저희는 총무처(경리팀)에서 질문내용이 추경 변동사항이 있느냐고 물어 와서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총무처장은 참석해서 답변을 할것을 요청 했는데 왜 참석하지 않았죠?

간사 김근태 : 저희가 대학평의원회 의장 발송 공문을 총무처(경리팀)에 전달을 하고 참석에 대하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공문 회신이 온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간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겠죠. 기획처장하고 예산팀장이 있으니 물어보겠습니다. 각 부처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총장실이면 총장실, 홍보실이면 홍보실, 처장이면 처장, 예산이 얼마씩 잡혀있지요? 타 부서 것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산팀장 조경숙 : 타 부서 예산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모자라면 쓰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예산팀장 조경숙 : 모자라면 내부적으로 부서간 협의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예산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간서명 란 >

의 장

예산팀장 조경숙 : 전용하고 추후 이사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전용하고 이사회 보고한다? 타당하지 않은 걸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팀장 조경숙 :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게 썼으면 전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게 썼느냐 아니냐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며, 부서간 목간내 전용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내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과거에 혹시 목적에 틀리게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산팀장 조경숙 :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써야한다는 것을 예산운용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3월에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를 가져서 각 항목마다 어떻게 써야한다는 지침을 설명을 하고, 전 직원이 참석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하면 50만 원 이하와 50만 원 이상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학교 발전의 목적에 부합하면, 내부적으로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썼다면 적합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 판단은 누가하나요?

예산팀장 조경숙 : 그 내용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50만원 이상과 이하의 기준 선을 그어놓고 이상인 경우에는 자세하게 어떤 목적으로 언제, 누구와 무엇 때문에 식사했다, 업무추진 하는데 어떤 용도로 썼다는 것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제까지 위반 사례가 있었나요?

예산팀장 조경숙 :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나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 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전체는 못하고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50만 원 이하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부서장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예산집행 지침 하에 쓴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평의원 기능 중의 하나가 예산도 심의하고 결산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간사 김근태 : 심의가 아니라 자문입니다.

평의원 김관균 : 네, 자문이요. 자문하는 가운데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자료를 요구하면 평의원회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평의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평의원회 존재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박영무 : 본교 추경 자문은 부분은 총무처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지금은 불가합니다. 병원부터 먼저 하죠?

기획처장 임재익 : 총무처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학교에 없을 겁니다.

의장 박영무 : 연락해서 오라고 하시지요. 연락 올 때까지 정회를 하죠.

(정회)

간사 김근태 : 연락드려본 결과 총무처장은 지금 경기도청에서 건축심의 중이랍니다.

의장 박영무 : 그건 총무쪽의 일방적인 사정입니다.

간사 김근태 : 예산 자문이 중지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그 전에 병원 자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처 분들은 나가도 되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이재호 평의원님, 공문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평의원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은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마 토탈공지로는 양쪽에 다 올렸는데 공문 못 보신 분이 계시니까 회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의장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장이 회의 진행하시나요?

평의원 김관균 : 간사님을 통해서 의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상황을 미리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저희한테도 미리 통보해주시면 저희도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당일에 와서 그 시간에 하면 그것도 조금 다른 업무들도 있으니까 진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그쪽에 그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평소에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그 부분은 기획처장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간사께서 각 부처별로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 미리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보고하시는 순서를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순서 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장 박영무 : 회의 서류 보낼 때 총무처 보고가 없으면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written form으로 했습니다.

간사 김근태 : 그건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박영무 : 기획처도 처장도 알고 있죠?

기획처장 임재익 :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순서에 대한 것은 못 들었습니다.

간사 김근태 : 순서에 대한 것은 없죠. 처장님은 그게 총무처장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의장 박영무 :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보낸 공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서도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오늘 자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간사 김근태 : 설 쉬고 나면 시간상으로 거의 이사회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사회가 언제쯤인가요?

간사 김근태 : 2월 중순 정도, 17, 18일정도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마찬가지로 자료를 넘겨야합니다. 1월 말까지 넘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의장 박영무 : 오늘 이것으로 폐회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11년 1월 28일

의 장	박 영 무	(서명)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박 정 웅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의 장